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데이터와 사회지표 연구

근래에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현상의 추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량적인 통계치를 일컫는다. 사회지표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정책결정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사회지표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개발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해서 실질적인 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사회지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목적은 구성원의 삶의 질의 개선 정도를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의 추이를 통해 그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목적은 그러한 삶의 질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의 효

과성을 측정하는데 있다.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의 개선이다. 사회정책이 과연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사회정책의 개입과 사회지표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지표의 목적이다.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에서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패널 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횡단적인 데이터도 사회지표의 자료로 중요하다. 하지만 패널 데이터는 동일 집단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횡단적 데이터가 제공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번 호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논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패널 데이터는 삶의 질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

사회지표의 개발과 분석에서 횡단 데이터에 비해 패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점은 집단효과(cohort effect)와 연도효과(year

effect)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효과는 어느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가령 예를 들면 사회의 변화를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관찰되고 비교되는 집단은 출생집단(birth cohort)이다. 출생집단은 특정 시기에 태어나 시간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양식에서 동일성을 보이게 된다. 연도효과는 출발한 지점에서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의 행동양식의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둔다. 가령,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생집단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시점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 행동양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가 한 시점에서 관찰하는 삶의 질의 상태는 보통 이러한 집단효과와 연도효과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횡단적인 자료로만으로는 현재의 상태에 미치는 집단효과와 연도효과를 구별해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종단적 자료인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반복 관찰함으로써 관찰한 시점의 연도효과와 출발한 시점이 차이를 고려한 집단효과를 분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패널 데이터는 사회지표의 두 번째 목적인 사회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도 유용하다. 하나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시점을 기해 실시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그 정책의 개입에 따른 구성원의 삶의 질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패널 데이터는 사회정책 개입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한 동일한 집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제공

하기 때문에 정책 개입과 변화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내는데 유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패널 데이터는 사회지표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횡단 데이터가 제공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은 다른 패널 데이터들에 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상태, 즉 삶의 질에 대한 자료 수집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지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과 같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사회지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이 사회지표 연구의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연구는 아직 대부분 소득과 같은 물질적인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훨씬 더 포괄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 사회지표에 대해 ilgi 시작한 새로운 관심은 단순한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내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 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삶의 질의 영역에 대한 사회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이 사회지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지역특성 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DB의 구축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

라 생활하는 공간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패널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한다. 즉 동일한 패널이 거주공간을 옮김으로써 어떤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비축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적 특성을 측정할 '지역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의 연구에 또 하나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geocoding 기술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지리학 등의 학문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한 사회지표 연구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각종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다양한 기관의 행정데이터에 기록되고 보관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은 건강보험행정데이터에 우리의 소득수준은 국민연금행정데이터에 수록되고 보관된다. 물론 그러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가운데 통계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될 때 매우 귀중한 사회지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지표 연구에 우리보다 앞서 나간 여러 국가들에서 그러한 행정데이터를 연구자료화해서 적극적으로 지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패널자료에 종단적인 행정데이터 자료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정데이터를 패널 자료와 결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지표가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정데이터의 적극적인 연구 활용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약해서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복지패널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의 질을 기록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표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지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박정**